

[大河기획 / 한라산 학술 대탐사 (225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9)
천연요새를 만들어낸 '오름대맥'

입력 : 2004. 12.24. 00:00:00

다(ㄷ 아래아·)래오름



▲다래오름.

괴오름을 내려와 국내 한 대기업에서 건설한 도내 최대규모의 홀을 보유한 골프장 뒤로 난 콘크리트길을 따라 다래오름을 향했다. 정상으로 향한 길은 가파르고 가시덤불이 울창해 오르기에 만만치 않았다. 표고 697m의 다래오름. 주변의 어느 오름보다 높지만 오름 밑에 서면 실제 표고에 비해 훨씬 더 높고 울창해 보여 그 웅장함이 보는 이들에게 위압감을 준다.

오름의 이름 다래는 예전에 다래나무가 많아서 다래나무를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오창명 교수(제주대 국문학)는 '제주도 오름과 마을의 이름'에서 월라봉(月羅峯)이라고도 부르는데 '달(月)'은 돌(아래아)의 훈가자 표현이고 羅는 유사음 '레'의 음가자 표기, 봉은 오름의 훈독자 표기라고 해석한다. 이 외에 도달하다(達)라는 뜻의 고구려어 고(高)에서 비롯됐다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로 분분하다.

다래오름은 남쪽으로 빈네오름과 서남쪽의 폭낭오름, 북서쪽의 괴오름·북돌아진오름과 함께 정사각형의 한 정점을 이루고 있어 그 가운데는 천연요새를 방불케 한다. 주변 일대에 관동군 121 사단 본부가 주둔했다는 것도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또 멀리 한라산의 정상에서부터 웃세오름과 천백고지의 삼형제오름, 한대오름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군사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시사해준다.

오름 중턱에는 관동군 121사단 예하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오름중턱에 입구를 막아버린 진지동굴 2개가 남아 있다. 동굴 앞에는 동굴에서 파낸 흙으로 알은 언덕을 만들어 진지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름 아래에서는 좀처럼 식별할 수 없게 했다. 이곳은 해방 직후 미군들이 점령 후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면서 진지동굴도 폭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역사가 깃들여 있는 오름인 것이다.

다래오름은 겨울이 아니면 오르기 힘들다. 숲이 우거져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고 시야가 가려 정상에 가면 방향을 분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식생은 비교적 어린 굴거리나무와 때죽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숲은 1895년에 공동목장 제도가 폐지되고 4·3의 환란을 겪은 이후 새롭게 형성된 숲으로 추정된다.

정상으로 가는 도중 어린 비자나무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동쪽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됐다고 알려진 비자나무가 서부지역 중산간지대에 나타나는 것은 제주의 식생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흔적들이다. 옛날에는 이 지역에도 비자림숲이 형성됐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이 이 지역에도 비자림군락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상에 올라 밑을 내려다보니 바로 옆 오름인 괴오름과 북돌아진오름에 올랐을 때보다 주변 골프장의 규모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래오름 동쪽으로 내려와 공초왓을 가로질러 빠져나왔다. 7만5천평에 이르는 광활한 공초왓(共草洞)은 예전에 곰취를 재배했던 밭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 이곳은 고지도상에 화전 마을로 나타나는 지역인데 솔도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 솔도는 제주섬에서 가장 높은 600m 지대에 자리잡은 마을로 마른궤라고도 한다. 4·3 때 소개된 후 지난 49년도에 재건됐는데 현재 5가구만 남아있다. 이곳의 드넓은 경작지는 '맹구드르(名拘野)'라고도 불리우는데, 사람과 개에 얽힌 애뜻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특별취재팀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